

#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 구조관계

김명수<sup>1</sup>, 이종훈<sup>2\*</sup>

<sup>1</sup>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sup>2</sup>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교수, 평생교육학 박사

##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Job Stress, and Child Care Teachers' Burnout

Myeong-Soo Kim<sup>1</sup>, Jong-Hun Lee<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ctoral Program

<sup>2</sup>Professor of Korea Life-Long Education·HRD Research Institute of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변인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32명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및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소진 감소 방안으로는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강화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시 된다.

• 주제어 : 보육교사,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구조방정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job stress variables affecting the exhaustion of child care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2 child 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child care cent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etting up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ia SPSS 21.0 and AMOS 22.0 statistical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social support directly affects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Second,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s but indirect effect.

Third, child care teachers' the job stress directly affect on child care teachers' burnout.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of the members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government.

• Key Words : child care teachers, social support, job stress, burnou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1. 서론

2015년 말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초저출

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1,2]. 정부는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보육정책을 주

\*Corresponding Author : 이종훈(accept119@naver.com)

Received July 18,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August 30,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2004년까지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내용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보육정책을 시행했고, 2005년을 기점으로 주요 정책 목표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시행 하였다.

2012년에는 '전 계층 무상보육'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2013년은 0세~5세까지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그 예산은 한 해 수 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6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편성하면서 3~5세 유아보육료 3조 1066억 원, 0~2세 보육료 2조 9634억 원, 긴급보육 바우처 607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8168억 원을 편성했다[3].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보육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었기에 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시민단체가 0~5세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정책 평가'에서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에 불과하여 [4]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현장에서는 계속하여 각종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즉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 보육현장에서 통학 차량사고는 2013년 32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와 관련된 아동학대 문제는 2012년 110건에서 2015년 427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5].

한편,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6,7]. 또한 Lee와 Kang[8]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교육 성패는 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성공적인 보육서비스의 중심에 교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학부모,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 행정지원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언론에서 일부 부정적인 특정 사건을 보육교사 전체 문제로 비화시킴으로서 자존감 저하 및 교사로서의 통제능력 상실, 교수목표 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9,10,11,12,13,14].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결국소진(burnout)을 초래하게 된다[15,16]. 소진은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반영된 심리상태로 감정, 동기, 태도 및 기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욕을 잃는 탈진상태

라고 할 수 있다[17].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을 돌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와 동시에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특성으로 인한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진에 보다 취약한 편이다 [18,19]. 이러한 보육교사의 소진은 보육현장에서 교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고 이는 낮은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으로 연결되어 이직에 영향을 준다[20].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8,11,21,22,23,24].

한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소진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원조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방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25,26,27].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 규준 및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 개선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탈피를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사회적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첫째, 보육교사가 직장 내 원장과 동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소진의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9]. 둘째, 보육교사의 직장 내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 [30,31]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완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경험한다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32,33,34,35].

선행연구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지만[9,36,37,38],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소진 변인 간 연구는 단편적이고 예측-준거 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초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과거와 달리 현재 변화된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반영 정도에 따라 보육교사의 부정적 인식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장내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 구조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Cohen 등[25]은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원조로 설명하고 있고, Park과 Ryu[26,27]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방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원천에 따라 조직 내·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동료, 상사로부터 받는 직장 내 지지와 둘째, 가족, 친구 및 이웃 등 직장 외 지지를 들 수 있다. House[39]는 제공되는 지지의 원천에 따라 지지의 양과 질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 대상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의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지지의 원천에 상관없이 도움의 합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House[39]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했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이며,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역할수행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 칭찬, 존중하는 평가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정보적 지지는 개인에게 생기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충고, 제안,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물질적 지지는 시간, 금전, 물건, 노동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Cohen 등[25]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로 나누었으나, Cohen 등[25]의 정의와 유형에 기초하여 Park[26]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압박감, 긴장, 피로한 상태 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으며, Cooper 등[40]은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요소로서 피고용인의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피고용인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항상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oore 등[41]은 피고용인이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업무환경이라고 지각할 때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이로 인해 높은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심리적 소진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Cho[42]에 의하면 조직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일반 스트레스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지만 스트레스가 가지는 기본 특성은 같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Yoo[11]는 교실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경우에 Manlove[19]와 Kim 등[43]은 일방적인 배려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직무의 대상이며 직무시간의 대부분을 영유아들과 보내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특성상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미성년인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기대를 경험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측정도 용이하지 않아 타 직종보다 4배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도 있다[44]. 그러나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고 연구한 결과[45]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지만 동료 교사 간은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46].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이고,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완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32,33,34,35]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47].

한편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유치원교사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직무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한다는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48,49,50]가 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는 보육교사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하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발표한 연구가 있다 [51,35,23,45].

## 2.2 사회적 지지와 소진

소진에 대하여 Chae[15]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소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소진은 대인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적 직업종사자(helping professionals)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며, Moore와 Maslach[41,52]는 소진에 대해 장기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정서적 압박으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라고 하였다.

Dignam 등[53]은 두 가지 모형으로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첫째, 직접모형으로 이 모형은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서 개인이 소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개인은 소진에 대한 지각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직접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36,9,37,54]가 있고,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를 연구한 Jeong 등[55]의 국내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둘째, 완충모형으로 Cohen 등[56]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완충된다고 가정하였다. 완충모형에 의한 연구로는 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인식은 직무환경의 위험요소인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킨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10].

직접모형과 완충모형에서 직장 내 원장과 동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소진의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53,9,37,54,57]가 있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Ahn 등[29]의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Ryu[27]의 연구

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Yoo와 lee[58,31]의 연구가 있다.

## 2.3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대인관계 서비스의 조력적 직업종사자의 대표적 직종인 보육, 사회복지, 간호, 항공서비스, 요양보호 등 직종들은 직무특성으로 인하여 경험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좌절감과 무력감, 상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소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59,60,61,62,63,64,65].

또한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려 직무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며 결론과 이직을 부추기고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소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55,56,66,67].

영유아 교사의 소진의 연구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유치원 교사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4,15,9].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소진을 경험한다는 결과 [11,21,8,22,23,24]가 있어 영유아 교사 업무의 특성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소진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인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36,37,38]가 있지만 이와 반대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영향이 없는 Jeong 등[55]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 직무스트레스의 간접효과는 유의한가?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11월 1일~2016년 11월 30일 까지 1개월간 서울시와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어린이 집에 재직 중인 교사들로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중인 5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선표본추출방법에 의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를 표한 자들이다.

### 3.2 측정 도구

각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은 Likert(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중등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목적으로 Cohen 등[25]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Park[26]과 Ahn[68]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k[26]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라는 용어는 측정 문항의 포괄적 의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Ahn[68]의 주장에 따라 도구적 지지로 변경하였다. Ahn[68]의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97이었다.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4개 측정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설문문항은 6개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alpha$ 값은 정서적 지지 .899, 정보적 지지 .902, 도구적 지지는 .826, 평가적 지지는 .889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총 24개 문항에 대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 값은 .967로 나타났다.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Moracco[69]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Shin[46]이 번안하고 Chae[14]가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hae[14]의 연구에서 제시한 Cronbach  $\alpha$ 값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Chae[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11개 문항, 업무 과부하 8개 문항, 동료와의 관계 5개 문항, 학부모와의 관계 3개 문항으로 4개의 측정 변수에 총 27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alpha$ 값은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이 .862, 업무 과부하는 .770, 동료와의 관계는 동료와의 관계 1번째 문항을 삭제한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757로, 학부모와의 관계는 .694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 4개 하위요인 총 26개 문항 내적 합치도 결과 Cronbach  $\alpha$ 값은 .899로 나타났다.

#### 소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등[16]이 개발한 Maslach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교사를 대상으로 한 Lee[70]의 연구를 보육교사에 맞도록 수정 사용한 Yoo[11]의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Yoo[11]의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alpha$ 값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 등 3개 측정변수에 총 22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alpha$ 값은 정서적 고갈이 .863으로, 비인간화 4번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의 Cronbach  $\alpha$ 값은 .684로, 개인성취감 감소는 .803으로 확인 되었다. 소진 3개 하위요인의 총 21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결과 Cronbach  $\alpha$ 값은 .846으로 나타났다.

### 3.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가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한 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53부가 회수되었는데 부분적 무응답 설문지 8부와 이상치(outliner) 검사에서 부적절하게 나타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총 432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각 측정변수들을 바탕으로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위부하량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한 연구경로모델(Early Path Model)의 통계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통계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22.0을 이용하여 11개 측정변수들에 대해 다변인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다변인 정규분포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또한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가 정규

본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AMOS 22.0의 ML(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추정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지수  $\chi^2$ 값, SRMR, RMSEA, CFI, TLI를 통해 평가하였고, 모델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역시 AMOS 22.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3.4 연구결과 및 해석

####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및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통계적 모델하의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 및 측정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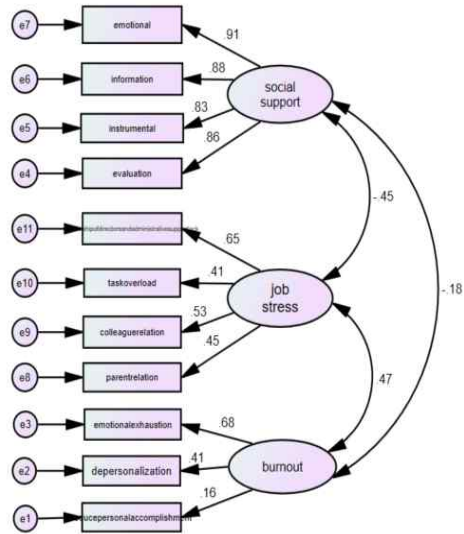
<Table 1> measured variable between correlation analysis, sample size, mean, SD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directors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lack	task overload	colleagial relation	parent relation	emotional supports	information supports	instrumental supports	evaluation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reduce personal accomplishment
job stress	directors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lack	1.00										
	task overload	.305*	1.00									
	colleague relation	.347*	.130*	1.00								
	parent relation	.268*	.331**	.211**	1.00							
social support	emotional	-.280**	-.001	-.373**	-.042	1.00						
	information	-.313**	-.051	-.329**	-.084	.809**	1.00					
	instrumental	-.263**	.008	-.251**	-.085	.743**	.731**	1.00				
	evaluation	-.304**	-.033	-.339**	-.067	.772**	.738**	.737**	1.00			
burn out	emotional exhaustion	.149*	.268**	.133*	.262**	-.083	-.087	-.117	-.143*	1.00		
	depersonalization	.074	-.015	.086	.142*	-.015	.109	-.060	-.068	.275**	1.00	
	reduce personal accomplishment	.016	-.181**	.107*	.032	-.201**	-.109*	-.196**	-.145**	.062	.200*	1.00
sample size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mean	33.58	30.98	12.06	9.21	20.49	20.67	20.27	20.73	28.73	18.98	14.66	
SD	8.83	5.72	3.95	2.80	4.53	4.53	4.37	4.53	6.87	4.02	2.81	

####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연구모델인 경로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71,72]에

따라 아래 [Fig. 1]과 같이 측정모델과 경로모델로 분리하여 설정하였다. 이후 설정된 측정모델과 경로모델 모두가 모델추정가능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하기에 측정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Fig. 1] measured model of parameter estimation

<Table 2>는 측정모델의 모델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추정방법(ML)을 사용하여 모델부합도를 추정한 결과표이다.

<Table 2> measured mode fit estimate

Model	NPAR	DF	CM IN	NC	TLI	SRMR	CFI	RMSEA(.89)	
								LO 90	HI 90
measured model	25	41	181.27	4.42	.90	.08	.92	.07	.10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연구모델의  $\chi^2$ 값, 2)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Bentler CFI, [73]의 NNF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71,72].

<Table 2>의 측정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7~.10)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델 설정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함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경로모델만 인정되면 연구가정의 모델추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ig. 1]의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0이상이면 잠재변수인 간에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45~.47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델의 변별 타당도(잠재변수별 상관이 높지 않아야 함)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분한 변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 간 부하량(설명량)을 살펴보면 각각 측정변수별 부하량이 평균 .5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수렴타당도를 만족[72]시켜 각각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잠재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델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잠재변수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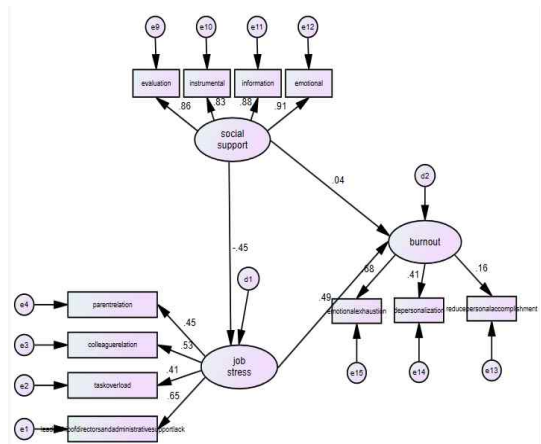
경로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이론적으로 경로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기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경로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경로모델과의 여부를 확인한 구체적 결과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early path model fit estimation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 (.89)	
								LO 90	HI 90
early path model	25	41	181.27	4.42	.90	.08	.92	.07	.10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경로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07~.10), CFI=.92>.90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고,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는 <Table 4>와 같다.



[Fig. 2] early path model parameter estimation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of early path model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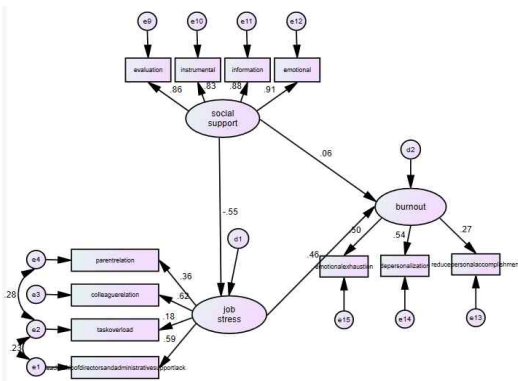
Variable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SE	C.R	P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ocialsupport → job stress	-.38	.06	-6.63	*	-.45
socialsupport → burnout	.01	.01	.47	.638	.04
job stress → burnout	.08	.04	2.04	*	.49

\*p<.05

모델 내 변수들 간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47, p>.05). 따라서 사회적 지지 → 소진 경로 간 경로가 유의하지 않기에 변수 간 공분산 설정을 제시하는 covariances 방법으로 [Fig. 3]과 같이 수정 경로 모델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수정 경로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수정 경로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ig. 3] modification and final path model

<Table 5> modified path model fit estimation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79)	
								LO90	HI90
modified model	27	39	145.03	3.72	.91	.07	.94	.06	.09
early model	25	41	181.26	4.42	.89	.08	.92	.07	.10

위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경로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대체로 초기 연구 경로모델 보다 양호하며, 수정된 Chi-Square(CMIN)값이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36.23 만큼 낮아져 부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이 부합도 기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Fig. 3]은 최종 경로분석모델로 설정이 가능하며, 이에 <Table 6>에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Table 6> Standardized Direct-Indirect Effects in Latent Variable

Latent Variable	Total Effe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ocial support → job stress	-.551	-.551	-
social support → burnout	-.188	.063	-.251
job stress → burnout	.456	.456	-

\*p<.05

최종 경로분석모델은 유의수준 .05에서 전체(총)효과, 직·간접효과의 모수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효과(-.55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효과(.063)는 유의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25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직접효과(.45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0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251)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은 잠재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간단히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를 통하여 최종 내생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74].

즉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통해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위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변수의 역할로 간접효과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효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최종 구조방정식 모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 필요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05 유의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Estimates

Latent Variable	social support	job stress	burnout
job stress	....	...	...
burnout	.011	...	...

\*p<.05

위 <Table 7>에 제시된 표준화 간접 효과 결과표는 사회적 지지 → 소진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확률은 .011로서 유의확률 .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모델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소진 두 변수 간 상관관이 유의하였고, 수정된 경로모델에서 사회적 지지 → 소진 경로 간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는 <Table 7>과 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소진 경로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 완전매개효과가 있고,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1차 측정모델과 2차 경로모델로 분리하여 모델의 부합도 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Lee 등[75]의 연구와 기혼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Kim 등[76]의 연구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완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32,33,34,35]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즉 동료 교사 및 원장 등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계속되어 서로 격려하고 지원을 한다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 교사 및 원장 등은 계속하여 보육교사에게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효과를 나타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간접효과만 나타나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Ryu[27]의 연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Yoo[58]와 lee[3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보육교사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더라도 소진을 감소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와 완전매개효과가 있기에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11,21,8,23,24]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육

교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소진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사회, 어린이집 등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시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 사회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 과중한 근무시간과 낮은 보수 등으로 이직률 또한 여타 교사들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임금 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소진을 낮추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는 서비스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같이 교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육교사의 위상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법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개인적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원장이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모독,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원장의 부적절한 응대 등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처우 개선에 노력한다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강화 방안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보육교사 개인이 구성원으로부터 신뢰와 관심을 받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시간, 노동 등에 대한 배려 및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인정 등이 강화되면 스트레스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보육교사들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로 국내 전체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교사의 소진 관련 변수들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각 지역별 보육교사 샘플링을 통해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소진이 조직몰입 또는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라 소진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literature

- [1]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6.
- [2] Population Health Association. Population report Korean version, 2016.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care business guide, 2013~2015.
- [4] www. ibabynews. com. Diagnosis of childcare policy, 2016.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2015.
- [6] K. S. Pyo,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2, No.-, pp. 57-76, 2004.
- [7] H. G. Huh, I. S. Park, "Influence of Childcare Teachers' Quality and Work Attitude on Childcare Qual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64, No.-, pp. 21-41, 2010.
- [8] K. N. Lee, J. S. Kang, "The Effects of Job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 Efficacy on Burnout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 No. 2, pp. 93-112, 2014.
- [9] K. S. Kw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kindergarten and preschool teachers 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5, pp. 323-333, 2011.
- [10] J. S. Kim, T. J. Choi, H. Y. Lee,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of Risk Factors of Job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Korea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Vol. 30, No. 3, pp. 427-441, 2011.
- [11] H. S. Yoo,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Teacher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3.
- [12] J. K. Lee, S. B. Moon,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Perceptions of Reward Perception on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4, pp. 165-184, 2011.
- [13] H. E. Lim, Y. H. Kwon, "Effects of Job Stress and Resilience on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Burnout",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Vol. 37, No.-, pp. 53-80, 2015.
- [14] Y. R. Chae, "Effects of the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of Preschool Teacher: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Burn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4, pp. 27-46, 2016.
- [15] Freudenberger, H. J.,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0, No. 1, pp. 159-165, 1974.
- [16] Maslach, C., & Jackson, S. 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Vol. 2, No. 2, pp. 99-113, 1981.
- [17] Kudva, P., *Impact of selected professional aspects on teacher burnout, India: H. J. College of Education*, 1999.
- [18] Derick, C. V., & Raschke, D. B., "The special job stress". National Association, Washington, K. C. Ed. pp. 323-723, 1990.
- [19] Manlove, E. E., "Multiple correlates of burnout in child care workers", *Early Childhood Teacher Quarterly*, Vol. 8, No. 4, pp. 499-518. 1993.
- [20] Farber, B. A., "Treatment strategies for different types of teacher burnout", *Psychotherapy in Practice*, Vol. 56, No. 5, pp. 675-689. 2000.
- [21] H. M. Yoon, P. S. Noh, "Relationship of Work Stress, Career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ducare-teachers", Vol. 43, No.-, pp. 157-184, 2013.
- [22] H. E. Lee, H. I. Kim, Y. H. Woo, S. H. Kim, S.

- B. Moon, "A structural analysis of child-care teachers' burnout and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job stress, empowerment, and workplace suppor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4, pp. 75-97, 2012.
- [23] S. B. Her, Effect of Social Support of Inclusive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on Job Stress and Burnout.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4.
- [24] H. J. Cho, S. Y. Kim,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Their Burnout",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6, pp. 231-247, 2011.
- [25] Cohen, S., & Hoberman, H. M,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2, pp. 99-125, 1983.
- [26] J. W.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1985.
- [27] J. Y. Ryu,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in Korea",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5, No. 2, pp. 315-328, 2002.
- [28] Weigel, D. J., Devereux, P., Leigh, G. K., Ballard-Reisch, D,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pp. 158-177, 1998.
- [29] H. J. Ahn, S. H. Ahn, H. J. Moon,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Day Care Teachers' Attribution, Social Supports, and Burn-out",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8, No. 5, pp. 221-232, 2007.
- [30] M. N. Yoo, N. R. Shin, "Childcare Teachers' Work-relate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3 No. 2, pp. 73-85, 2013.
- [31] M.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ple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married child care teachers.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5.
- [32] Kyriacou, C., "Teacher stress and burnout: An international review", *Educational Research*, Vol. 9, No. 2, pp. 146-152. 1987.
- [33] Skaalvik, E. M., & Skaalvik, S., "Teacher self-efficacy and teacher burnout: *A study of relatio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 26, No. 4, pp. 1059-1069, 2010.
- [34] Y. H. Kim, H. D. Kang, "The Relations among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Schoo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Vol. 51, No. 4, pp. 69-93, 2011.
- [35] Y. R. Kwon, Y. K. Moon, "An Analysis on Meditating Effect between the Teacher Efficacy and the Job Stress with regard to Child Care Teacher's Social Support and Turnove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6, No. 1, pp. 99-119, 2016.
- [36] K. H. Kang, Y. H. Pyo,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Job Stress and Burnout for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5, No. 1, pp. 431-451, 2013.
- [37] Y. M. Kim, "A Study on Burnout and Social Support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4, No.-, pp. 111-127, 2003.
- [38] H. J. Oh, "Risk Factors of Job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Amo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Comparison of Special Schools and Special Class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1, pp. 273-295, 2014.
- [39] House, J. S., Occupation Stress and the mental and

- physical health of factory worke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80.
- [40] Cooper, C. L., & Marshall, J., "Occupational sources of str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il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49, pp. 11-28, 1976.
- [41] Moore, K. A., & Cooper, C. L., "Stress i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 theoretical over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42, pp. 82-89, 1996.
- [42] K. Y. Cho, A Study on Factors of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and Effect on Behavioral Outcomes.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1.
- [43] B. Kim, H. Y. Shin, "An Exploratory Study on Job Stress of Day Care Teac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3, pp. 253-276, 2000.
- [44] K. A. Son, J. W. Ko,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 between Teacher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5, No. 4, pp. 73-94, 2007.
- [45] S. Y. Cho, J. H. Lee,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Directors' and Fellow Teachers' Social support o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Journal of Korean Hom Management Association*, Vol. 28, No. 4, pp. 29-42, 2010.
- [46] H. Y. Shin,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4.
- [47] C. Y. Jang, Y. J. Kw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Job Stress: Focused on Psychological Burnout among Teachers", *Korea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157-180, 2006.
- [48] S. K. Lee, M. J. Song, E. A.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Job Str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ing Flow",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0, No. 1, pp. 133-156, 2016.
- [49] Y. M. Lee, The Structur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ontessori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Graduate School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04.
- [50] H. W. Chung, O. H. Lee, "The influence of job stres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and experienced preschool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3, pp. 31-54, 2011.
- [51] K. Y. Kwo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eachers' Job Stress in Corporate-Sponsored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9, No. 3, pp. 487-498, 2010.
- [52] Maslach, C., Burned-out. *Hum behavior*, Vol. 5, pp. 16-22, 1976.
- [53] Dignam, J. T., Barrera, Jr., M., & West, S. G.,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rrectional offic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2, pp. 177-193, 1986.
- [54] S. H. Ahn, J. E. Kim,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ork Condition, Social Support on the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s",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12, No. 5, pp. 147-164, 2007.
- [55] J. E. Jeong, Y. H. Park,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care Teachers' Burnout,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Perceived Emotion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 Problem Solving*, Vol. 12, No. 1, pp. 111-132, 2016.
- [56] Cohen, S., & 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No. 2, pp. 310-357, 1985.
- [57] K. H. Lee, M. J. Ju, H. Y. Lee, "The Effect of Teacher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 Kindergarten Teachers' Burnou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1, pp. 97-111, 2011.
- [58] M. N. Yoo, N. R. Shin, "Childcare Teachers Work-relate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3, No. 2, pp. 73-85, 2013.
- [59] Fuqua, R., & Couture, K., "Burnout and locus of control in child day care staff", *Child and Youth Care Forum*. Springer Netherlands, Vol. 15, No. 2, pp. 98-109, 1986.
- [60] McMullen, M. B., & Krantz, M., "Burnout in day care workers: The effects of learned helplessness and self-esteem", *Child and Youth Care Quarterly*, Vol. 17, No. 4, pp. 275-280, 1988.
- [61] J. Y. Lee, K. H. Kim, H. K. Shin, "An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and Burnout upon Job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1, No. 4, 2011.
- [62] S. J. Ju,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o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schools", *The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Vol. 32, pp. 53-85, 2015.
- [63] N. Y. Yang, J. S. Choi, "Relationships of Nurses' Perception, Nursing performance, Job stress, and Burnout in relation to th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Hospital Accredita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0, No. 1, pp. 1-9, 2014.
- [64] D. H. Choi, "Impact of Job Stress on the Burnout in Airline Employees: Using Moderate variable Job Position", *The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9, No. 5, pp. 23-29, 2014.
- [65] S. C. Yoon, S. H. Kwon, H. J. Kang,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of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428-440, 2016.
- [66] Maslach, C., Schaufeli, W. B., Historical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burnout. Schaufeli et al.(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1-16, Washington, D. C.: Taylor & Francis, 1993.
- [67] Rosenberg, T., Pace, M., "Burnout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 Special considerations for the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Vol. 32, No.1, pp. 87-99, 2006.
- [68] H. J. Ahn, The relation of emotional labor of kindergarten teachers with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of master's degree thesis, 2013.
- [69] Moracco, J.C., Danford, D., & D'Arienzo, R. V., "The factorial validity of the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42, No.1, pp. 275-283, 1982.
- [70] J. I. Lee,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er's Self-efficacy, and Teacher Burnout.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of doctorate thesis, 2011.
- [71]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5.
- [72] S. B. Moon,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Seoul: Hakjisa, 2009
- [73] Tucker, L. R., & Lewis, C.,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8, No. 1, pp. 1-10, 1973.
- [74] J. P. Yu,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e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Academy, 2015.
- [75] E. K. Lee, J. H. Park,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i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5-24, 2016.
- [76] H. S. Kim, S. S. Kim,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 101-114, 2017.

저자소개

김 명 수(Myeong-Soo Kim) [정회원]



- 2012년 08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17년 09월 현재 ~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행정, 보육정책, 노인문제

이 중 훈(Jong-Hun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학 박사)
- 2009년 12월 ~ 2017년 9월 현재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HRD연구소 교수

- 2016년 9월~현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 심리 및 심리상담